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2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26일 (음력 6월 4일) 수요일

장마 · 폭염에 ‘채소류 · 과채류 가격 폭등’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본부, 생육여건 악화로 출하량 감소

청상추100% · 배추 83.3% · 애호박 80% 올라...계란값은 8% 내림

장마로 인한 잦은 비와 폭염이 지속되면서 채소류와 과채류 가격이 크게 들쭉이고 있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폭염 등에 의한 생육여건 악화로 상추, 배추, 오이, 호박 등

채소류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거래된 청상추 100g당 소매가격은 2주전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가격이 100% 폭등했다.

배추도 2주전 1포기 당 3000원에 거래되던 것이 5600원으로 가격이 83.3% 올랐다.

경기와 중부지역의 수해 영향으로 공급량이 줄어든 애호박은 2주전 1개당 1000원에서 1800원으로 가격이 80% 오른데 이어 오이도 10개당 8000원에서 8000원으로 가격이 33.3% 상승했다.

방울토마토와 참외도 지속된 폭염과 끝물로 인한 출하부진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형성하고 있다.

2주전 1kg당 3500원에 거래되던 방울토마토는 5000원으로 가격이 42.86% 오른데 이어 참외는 10개당 1만2000원에서 1만2500원으로 가격이 4.17%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무더위 해갈용으로 소비량이 많은 수박은 1개당 2주전 1만3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가격이 7.69% 내리는 등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한동안 크게 올랐던 계란값은 대부분 학교의 방학이 시작되면서 급식 납품용 수요 감소로 30개들이 1판당 가격이 7500원에서 6900원으로 8% 내렸다.

aT 관계자는 "폭염과 우천으로 인한 공급 부진으로 채소류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이 겹쳐 상추 등의 업체류는 소비 증가로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타 대부분 품목은 학교방학에 따른 급식용 납품수요 감소로 내림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강진청자축제 준비하는 도공 제45회 강진청자축제 개막을 앞두고 25일 오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고려청자박물관 2호 가마에서 도공들이 장작을 넣고 있다. 이날부터 전통가마에서 구운 완성 청자는 8월3일 꺼낸 뒤 청자촌 광장에서 공개 경매한다. 강진청자축제는 오는 29일부터 8월4일까지 열린다.

광주시민사회·경제단체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중단”

“우수 생산기술 넘어갈 것”

광주지역 시민사회·경제단체가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진보연대·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산업은행 광주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력기업인 금호타이어가 산업은행 주도 채권단에 의해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북위 상하이저본’에게 당했던 쌍용자동차의 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이 뻔하다”며 “당시 중국 상하이시는 쌍용차의 우수한 생산기술만 챙긴 뒤 무차별적 구조 조정과 노동자 해고, 법정 관리의 수순을 밟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자국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호타이어가 자체연구 개발을 통해 축적한 860여개의 독자기술과 글로벌 특허권 50여건 등 세계적 기술이 중국기업 더블스타로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며 “방위산업체로 국방부에 납품하는 기술력까지 합하면 더욱 위험하다. 국내공장은 폐쇄되고 그 결과 대량 실업, 협력업체 연쇄 파산, 지역 경제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 “산업은행이 당장의 손실을 메우려고 방산업체이자 세계적 타이어 기업인 금호타이어를 ‘북위’가 예상되는 중국 기업에 성급하게 매각하려 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큰 우를 범하는 것이다”면서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 광주시도 노동자 고용지킴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매각 중단 촉구 성명을 내고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인수될 경우 고용 불안과 함께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며 “이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기술 유출에 따른 안보적 관점 모두를 고려해 봐도 이번 산업은행의 결정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기업의 인수합병은 시장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그 이전에 매각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고 진행하는 게 옳다”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남규 기자



다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시간에 맞춰 딱 도착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이 자리에 못 있는 분들이 많아요’라는 농담을 건넸다. 수석·보좌관 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여민관에 다소 일찍 도착해 커피를 내린 후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정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은 문 대통령 오른편 옆자리를 지칭하며 ‘비서실장이 공식이다’라는 제보를 건넸다. 임비서실장은 회의 시작 시간인 오후 2시 정각에 착석했다. 주변에서는 ‘질질 뻘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못 있는 분들이 많아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임비서실장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자료사진=뉴시스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에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